

## 영암 다시 시작이다 성과

# 변방의 전남, 국제화 자신감 가졌다

F1 코리아 그랑프리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속에 막을 내렸다. 변방에 불과하던 영암이 국내 최초로 F1을 개최함으로써 한국 모터 스포츠의 새 장을 열고 글로벌 도시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은 큰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를 무난하게 개최해 지역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효과가 거뒀다. 그러나 컨트롤 타워 부재로 인한 운영 미숙과 교통·숙박 인프라 부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겼다. 첫 단추를 켜 영암 F1 대회가 향후 6년을 넘어 11년간 성공적으로 '통관'하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를 점검해 본다.

24일 영암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폐막한 F1 대회는 적지않은 수확을 거둔 역사적 이벤트로 기록될 전망이다. 16만명의 관람객을 불러들인 것 외에 사상 최초로 F1 대회를 개최해 국가 브랜드 및 지역 이미지 홍보면에서 성과를 거뒀을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에게 모터스포츠산업 활성화 및 서남권 국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제화 물고 났다' = F1 대회조직위원회가 추산한 관람객은 3일간 모두 16만3000명. 단일 대회로는 최대 규모다. 비가 오는 낱씨 속에

## 서남권 글로벌도시 도약 지역발전 성장동력 충분

신감=전남발전연구원 이진철 기획실장은 "이번 F1 대회는 중소도시에서도 국제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줬다는 데 후한 점수를 줬다. 수도권에 비해 교통·숙박 등 모든 조건이 열악하지만 충분히 치러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향후 2012년 어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수도권이 아니라 안된다'는 식의 고착된 패배의식을 극복하는 한편, 가뜰이나 극심한 경기침체로 주눅 들어있는 지역민들의 자신감 회복에도 도움이 됐다는 것이다.

◇미래성장동력 마련 = 전남도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모터스포츠복합 레저도시' 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지면서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J프로젝트)' 삼포지구(428만8637㎡)에 경주장을 중심으로 모터스포츠 중심 도시를 건설하는 것으로, 드라이빙스쿨·첨단 자동차 기술연구소·자동차 박물관 등 모터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세계 5대 자동차생산국인 에도 불구, 모터스포츠산업에서 변방에 머물러왔던 만큼 이번 대회를 계기로

로 모터스포츠 메카로 발돋움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기업 적극 나서야 = 'F1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및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시켜 나가느냐 여부에 달려있다. 첫 대회인데, 낮은 인지도 탓에 이번 대회의 경우 타이틀 스폰서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낮은 인지도 탓에 이번 대회를 계기로 마련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들 바탕으로 F1대회가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으로 전환될 때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진철 실장은 "F1 대회를 통한 관련 산업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과 지원 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알림



## 가을 바람 햇살 그리고 銀輪의 추억

### 10월31일 '2010 그린 광주·전남 자전거 축제'

자전거 문화 확산을 위한 '2010 그린 광주·전남 자전거 축제'가 오는 10월 31일 광주와 전남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자전거 인구 확대를 통해 건강을 다지고, 친환경·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새롭게 정비한 이번 코스에서 이 가을 아름다운 남도의 햇살에 빛나는 은륜의 추억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 일시: 2010년 10월 31일(일) 오전 8시30분 출발
- 코스: 광주시청(출발)-극락교 삼거리-평동공단 입구 삼거리-동신대학교-삼거리교차로-호남대학교(도착)
- 주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일보사
- 주관: 광주광역시 사이클연맹
- 문의: (062)220-0541
- 참가신청: http://bike.kjmedia.co.kr

光州日報社



### 낙엽을 밟으며

가을인가 싶더니 시민들의 옷이 어느새 두툼해졌다. 25일 오후 광주시 남구 방림동 대남로 산책길을 나선 시민들이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수북이 쌓인 낙엽길을 빠르게 걷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F1 성원에 감사 잘못된 부분 개선"

박준영 시사 기자회견



박준영 전남지사는 25일 "국민 성원에 힘입어 포틀러(F1) 코리아 그랑프리 큰 차질없이 개최했다"면서 국민과 지역민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박 지사는 이날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F1대회가 전남에서 열릴 수 있도록 인내를 갖고 지지에 주신 전남도민과 정부와 대회 관계자, 자원봉사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가장 낙후된 전남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주장을 만들어 F1대회를 개최했으며 이를 발판으로 앞으로 이곳에서는 한국 모터스포츠 산업의 기반을 닦는 작업과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 등이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주장 건설이 지연되고 애초 예상과 달리 충분한 수익은 내기 어렵지만 올림픽, 월드컵 등과 마찬가지로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당장의 수익성보다는 장래를 위한 투자로 받아들여 달라"고 당부했다.

대회기간 제기됐던 자유이용권 납부, 가설스탠드 미준공 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매우 생소한데다 첫 대회이다 보니 협조를 요청한 것은 사실"이라며 "불편을 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박 지사는 또 경주 전까지 차질없이 완공해 대회를 치르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가설스탠드 공정이 마무리되지 못한 채 대회가 치러진 데 대해 "예산이나 설비 확보가 많이 늦어진 때문으로, 대회 전날까지 군인·공무원 등을 동원해 설치작업을 벌였지만 끝내 하지 못했다"면서 "관람객 안전을 소홀히 할 수 없어 일부 가설 스탠드는 폐쇄했다"고 해명했다.

대회운영법인인 카보(KAVO)와 조직위원회간 불협화음과 혼선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들을 검토해 개선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을기자 dok2000@

## 대학 시간강사 교원지위 부여 강의료 8만원으로 인상

이른바 '보따리 장수'로 불려온 대학 시간강사에 법적으로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이는 '조선대 시간강사 자살 사건'(본보 5월 27일자 1면)에서 촉발된 것으로, 향후 시간강사들의 처우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 고건)는 25일 "시간강사를 고등교육법상 교원으로 인정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하기로 교육과학기술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시간강사들의 법적 지위 향상은 물론, 열악한 처우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시간강사는 지난 1977년 교원에서 제외돼 연구실이나 연구비 등의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통위는 개정안 공표 이후 3년 내에 전국적으로 전업 시간강사 7만여명이 법적으로

교원 지위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통위는 또 개정안에서 시간강사의 계약 기간을 현행 학기 단위에서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임용토록 하고 고용 불안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통위는 오는 2013년까지 시간강사의 강의를 현재 4만3000원에서 8만원까지 인상하고, 연구 보조비도 시간당 5000원에서 2만원으로 증액키로 했다. 또 4대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시간강사의 복지를 위해 단계적으로 4대 보험 사용자 부담분을 지원하고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앞서 사통위는 지난 5월 광주에서 시간강사 서포(45)씨가 자살한 사건과 관련,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시간강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책 마련에 착수했다. 당시 서씨는 '교수 채용 대가로 여대의 돈을 요구받았다'는 유서를 남기

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파문이 일었다.

사회통합위원회 고 건 위원장은 "시간강사 처우 개선책은 교과부 장관과 합의한 사안"이라며 "이번 방안이 제도화되면 대통령령 개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호기기자 kimho@kwangju.co.kr 연합뉴스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56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황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 최저 2도 초겨울 날씨...서해안·섬 일부 약한 눈

26일 광주·전남지역 아침 최저기온이 2도까지 내려가 초겨울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해안과 섬 지방에서는 산발적으로 약한 눈이 내리는 곳도 있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6일 광주·전남지역은 한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추겠다"고 25일 예보했다.

26일 아침 최저기온은 2도~7도, 낮 최고기온은 9도~12도가 되겠다. 전남보다 최저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져 눈작을 빙해가 예

당신만을 위한 비즈니스 호텔

- 한치 스페셜 - 해물지리탕, 추어탕, 육개장
- 특선해물뷔페 - 35,000

특대인원

- 객실: 전 객실 50% 할인
- 웨딩홀: 웨딩패키지 할인 숙박권 제공
- 풀전차: 숙박권증정 및 패키지 할인

합숙연 · 각종 세미나 대 · 중 · 소 연회장 완비

히딩크관광호텔  
예약문의 ☎(062) 227-8500  
www.hiddinkhotel.com

서구청장후보자김선옥후원회 광고

www.ksok.pe.kr

# 민주당 공천 여론조사 1위

김선옥 28.2%, 서대석 18.9%, 김종식 14.3%

## 김선옥과 함께 해주십시오

후원방법

- 후원금은 연간 1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연말정산 시 전액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만원 초과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개인은 누구나 500만원까지 자유롭게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단, 법인이나 단체 명의로는 후원할 수 없습니다)
- 1회 10만원, 연간 120만원까지는 익명으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1회 30만원, 연간 300만원 이하 후원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기부하신 후원금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 후원계좌로 송금하시고 (062-365-1027)로 전화주시면, 영수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후원계좌

농협 301-1001-9009-41 / 광주은행 169-107-175373  
예금주: 조경숙(김선옥후원회)

서구를 바꾸는 생활행정

# 김선옥 2

· 이 광고는 '정치자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것입니다. 법인 또는 단체, 공무원, 교사는 후원금을 기부 할 수 없습니다.